

아파트, 이젠 주민들이 직접 짓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주에도 건립 '활기'

2개 단지 착공·3곳 승인 절차

‘아파트도 주민이 직접 짓는다’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최대 20%나 값이 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잇따라 광주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폭등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모여 땅을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바람이 거센 것이다. <관련기사 8면>

23일 광주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각화동 휴먼파크지역주택조합이 광주에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한 이래 현재 5곳에서 조합이 결성돼 착공에 들어가거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 북구 각화동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는 지난 13일 착공에 들어갔다. 각화동 휴먼파크지역주택조합은 2017년까지 각화동에 전용면적 84㎡ 588가구 등 1050가구의 아파트(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를 짓는다. 앞서 광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중 가장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무지구 광명메이루즈는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등 496가구의 수상복합 형태로 건립된다.

광주첨단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사업 승인을 받고 북구 분촌동에 834가구 규모로 다음달 중 착공을 준비중이다. 시공사는 대우산업개발인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안’ 브랜드를 들여온다.

이외에도 가장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북구 동림동에 현대아산빌앤드스, 백운동 지역주택조합이 남구 백운동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를 각각 건립하기 위해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불과 2년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5곳이나 진행되는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1채만 가진 사람

아파트명	주소	가구수	비고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	북구 각화동 412-1	1050	승인 후 착공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남구 백운동 644-23	528	승인 절차 진행중
광명메이루즈	서구 치평동 1249	496	승인 후 착공
현대아산빌앤드스	북구 동림동 750	806	승인 절차 진행중
대우이안	북구 분촌동 670-11	834	승인 완료

들이 시행 주체가 돼 돈을 모아 부지를 사고, 그 땅에 ‘내 집’을 짓는 제도다. 주민들이 직접 시행을 맡는 만큼,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와 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각화동 서희스타힐스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530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554만원보다 저렴하다.

광주의 경우 최근 1년간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762만원(8월 기준)으로, 1년 전(620만원)보다 140만원이 넘게 올라 ‘분양가 인플레이’를 겪는 정도 한 원인이다.

시공을 맡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부지구입비 및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다, 조합원이 70% 이상 모집돼 있어 사업을 받기는 분위기가.

반면, 사업시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지역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다,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는 지역민 역시 조합결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긴 사업기간과 자금 안전성 등 문제도 존재하는 만큼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꼼수’



한국 유도의 간판 김재범이 23일 인천 중구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대륙간 남자유도 단체전 몽골과의 4강 경기에서 남수현 다그바수렌을 넘기고 있다.

4년치 ... 13% 인상안 ‘담합’

광양시·무안군 의회는 동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정비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광주 동구와 북구의회는 13% 인상을 집행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의회는 지난해 4.6%를 인상했으며, 내년도에도 요구안대로 인상이 이뤄지면 현행 3391만원에서 3655만원으로 정부가 정해준 의정비 상한선 3766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서구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매년 인상해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4년 임기동안 총 17.2%를 인상하는 셈이어서 한꺼번에 대폭 인상한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구의회는 최근 4년간 의정비 인상이 21%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높은 인상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남구와 광산구의회도 내부적으로 13% 인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통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한자릿수 인상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의원 총회를 거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수준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역·기초의회가 일제히 두 자릿수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의정비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선거가 시행된 해에만 의정비를 확정할 수 있고 다음 선거까지는 바꿀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4년간 동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되자 4년치 의정비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양시의회와 무안군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향후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에서 올릴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서 엘리베이터 추락사 ▶6면

컬처 & 피플
정호승 시인 ▶1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펜싱 코리아’ 남·여 단체 금 해남군청 박경두 금1·은1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 나흘째인 23일 한국은 펜싱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하는 등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20면> 해남군청의 박경두(30)가 출전한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한국은 일본을 25-21로 꺾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21일 고향에 첫 메달(은메달)을 선물한 박경두는 유도 김성연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한국은 박경두와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정진선(30·화성시청), 권영준(27·익산시청), 박상영(19·한국체대)이 출전에 일본

을 25-21로 따돌렸다.

앞서 열린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12년 만에 첫 금메달을 쟀다. 3개 대회 연속 은메달에 머물렀던 한국은 김지연(26·익산시청), 이라진(24·인천중구청), 윤지수(21·동대대)가 중국을 45-41로 꺾으면서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승마 마장마술 ‘에이스’ 황영식(24·세마대승마장)은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에서 대회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율 韓律

한율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율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율 올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비수분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2. 윤기가 더해져 한결 아연 보이는 듯하다	99%	비수분	한결 맑아진 느낌이다	99%
3. 단단히 자를라 탄력해진 느낌이다	98%	비수분	탄력감이 좋아졌다	99%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